"장흥 고싸움줄당기기 문화재 등록 서둘러야"

장흥전통인문학문화강좌
형식적 시연 탈피 명맥 잇고
독특한 관광자원 활용 필요

장흥 고싸움줄당기기의 문화재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문화원은 최근 장흥군민회관에서 1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전통인문학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인문학문화강좌는 '장흥 민속의 문화사적 가치와 보존 전승-고싸움줄당기기, 장흥신청 외'란 주제로 이경엽 목포대 국문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이 교수는 장흥을 넘어 남도의 소리와 춤을 배우고 전승했던 최옥산, 신흥재, 김녹주 등 탁월한 음악가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독특하게 고싸움과 줄다리기가 결합된 장흥 고싸움줄당기기가 현재 형식적인 시연으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장흥 고싸움줄당기기와 비슷한 시기에 복원·재현된 광주 광산구 칠석고싸움놀이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장흥도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그는 오키나와 줄다리기를 예로 들면서 "오키나와 줄다리기는 생동감과 활력이 넘친다"며 "축제 자체가 목적인 까닭에 전승 주체가 주인이 되어 즐긴다. 그것을 보고 느끼러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는 운동장에서 다른 행사의 방편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장흥도 군민의 지혜를 모아 과감하게 일상생활의 공간인 거리에서 고싸움줄당기기를 펼치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등 장흥군의회 의장은 "문림의향 장흥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전승하려는 인문학강좌에서 많이 배운다"며, "장흥의 고싸움줄당기기를 복원하고 지원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금호 장흥문화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장흥인문학강좌를 통해 숨겨져 있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 내를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이승옥 강진군수와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강진 아르코 공연센터' 개관식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대구면에 '강진 아르코 공연센터' 문 열어

'강진 아르코 공연센터'가 지난 22일 문을 열었다.

강진 아르코 공연센터는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에 선정돼 강진군 대구면에 847㎡ 규모로 조성됐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할 센터는 전남지역 유일의 공연연습공간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이승옥 강진군수를 비롯해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차영수 전남도의원, 배홍준·김보미 강진군의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선출 선임감사, 황호용 강진문화원장을 비롯한 지역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재단 이사장 인사말, 황주홍 국회의원의 축전, 국악단 '소리야' 가야금 병창,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는 강진군과 전남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발전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옛 장흥교도소 드라마·영화 촬영지 인기

드라마 '친애하는…' '시간'
영화 '1987' '더 프리즌' 찍어

장흥군에 있는 옛 장흥교도소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방영중인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와 MBC 수목드라마 '시간'이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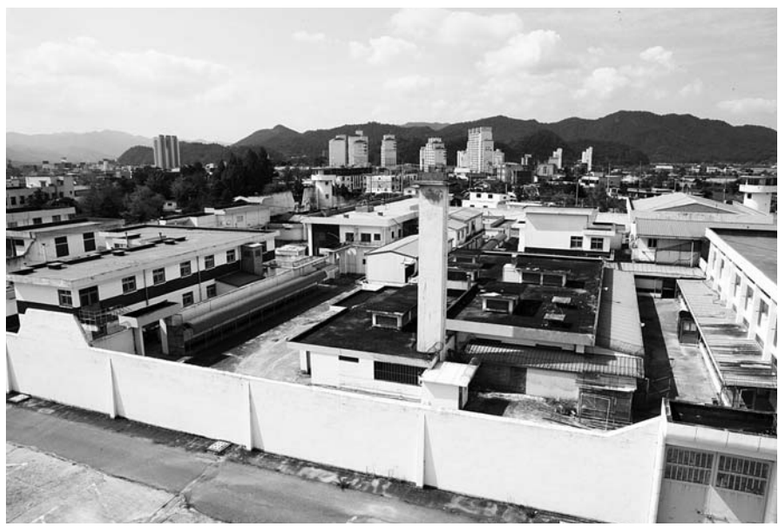
방영을 준비중인 KBS2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과 SBS드라마 '미스 마'도 최근 장흥교도소에서 촬영했다.

방영이 종료된 '피고인'과 '슬기로운 감빵생활'도 옛 장흥교도소가 주무대였다.

한석규와 김래원 주연의 '더 프리즌'도 세트장이 아닌 실제 장흥교도소에서 4개월간 촬영했고 영화 '1987'도 장흥교도소에서 찍었다.

1975년 문을 연 옛 장흥교도소는 장흥읍 원도리 9만318m² 부지에 42개동의 수감시설을 갖췄다. 새 교도소는 2015년 9월 용산면으로 이전했다.

장흥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옛 장흥교도소 수감동 부지를 매입해 교정 체험 교도소와 이청준 문학관, 촬영 스튜디오 등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드라마·영화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 전경.

30일부터 이틀간 강진서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제18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가 30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강진에서 열린다.

전남농아인체육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농아인체육연맹 강진군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농아인 단체 소속 선수·임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종목별 전남도 대표선수를 선발할 예정이다.

주요 경기 종목은 ▲육상(종합운동장 하멜구장) ▲게이트볼(종합운동장내 게이트볼장) ▲수영(강진실내수영장) ▲역도·바둑(강진 제1, 2실내체육관) ▲탁구(상하수도사업소) ▲볼링(AMF볼링장) ▲당구(포지션당구장) 등이다.

김영기 강진군 스포츠산업단장은 "강진군에 방문한 선수와 관계자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일선 담당(계) 줄이고 중복기능 통합

민선 7기 장흥군 기구개편 윤곽…내년부터 시행

민선 7기 장흥군 기구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정종순 군수 취임 이후 2개월여 검토 끝에 현행 13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0개 읍·면 체제를 14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0개 읍·면체제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번 군 기구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지자체는 담당(계) 중심인 체제인 상황에서 현 144개 담당(계)을 135개 담당체제로 9개 담당을 줄여 능률적인 생산적인 기구로 개편됐다는 점이다.

군은 지난 2002년 부터 투자유치와 통합의료분야를 다룬 기업지원과와 우드랜드와 목재산업을 담당했던 우든벨리사업소 업무를 폐지해 지역경제와 산림, 보건소(방문보건) 기능을 확대해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이원화로 부서간 마찰을 빚어온 건설과 도시, 교통, 재난안전분야를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로 분리하는 한편 현행 이원화 체제인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관 단일체제로 슬림화했다.

군은 기구개편 최종(안)을 주민의견을 거쳐 입법예고하고 군의회 제출(10월), 조례규칙 공포 과정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장흥군은 기구개편과 더불어 년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서기관과 사무관급 공석에 따른 사무관(5급) 10여명에 대한 선발인사를 이달말 께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공직자 갑질 신고·지원센터 개소

감찰반·지원반 등 본격 가동

영암군이 공직자 갑질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공직자들이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영암군청 기획감사실에 설치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다양한 갑질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지원센터는 감찰조사반과 피해자 지원반 등 2개 반을 운영하면서 갑질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 갑질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 신고와 접수는 영암군청 홈페이지 내 갑질피해신고센터 방을 이용하면 된다.

대표적인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전동평 염암군수는 "공공기관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정을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암군 공직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영암군 민간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

영암군이 재난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지역 민간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영암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관광숙박시설·판매시설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나 붕괴 같은 재난 발생 때 조직 및 지휘체계, 단계별 대응절차, 행동요령 등이 명시돼 있으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임무를 부여받은 시설종사자 등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미비 사항은 개선·보완 조치 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정제기 영암군 안전건설과장은 "최근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꼼꼼히 지도 점검해 시설 안전관리자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매뉴얼이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8400만원**

✓ **53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7층, 코너, 전망좋음,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 시세 – 1억 5000만원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